

‘투·타 균형’, 상승 동력 삼아 내친김에 ‘더 높이’

KIA, 주중 키움·주말 LG상대 서울 6연전

김호령, 공수 화끈·올려 ‘다승 1위’...팀 ERA 1위·팀 타율 3위
박상준 공백·김도영 반등 관전, 필승 비법 “상대 수비 흔들어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서울 원정 6연전에 나선다. 상대는 리그 9위 키움 히어로즈와 2위 LG 트윈스다. 상위권 추격 흐름을 이어갈 차례다.
25일 기준 KIA는 48경기 25승 22패 1무, 승률 0.532로 4위다. 1위 삼성과는 3.5경기 차, 2위 LG와 3경기 차, 3위 KT와 2.5경기 차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주 홈 5경기 4승 1패를 거두며 상승세를 탔다. LG와 1승 1패 뒤, SSG에게 씩씩이하며 3연승을 내달렸다. 순위표

프로야구 팀별 순위 (24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삼성	28	18	1	0.609	0
2	LG	28	19	0	0.596	0.5
3	KT	27	19	1	0.587	1
4	KIA	25	22	1	0.532	3.5
5	한화	23	24	0	0.489	5.5
6	SSG	22	25	1	0.468	6.5
6	두산	22	25	1	0.468	6.5
8	롯데	19	26	1	0.422	8.5
9	키움	20	28	1	0.417	9
10	NC	19	27	1	0.413	9

상단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이번 주 결과가 중요하다.
일정도 녹록치 않다.
KIA는 28일부터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과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이어 29일부터는 잠실로 이동해 LG와 주말 3연전에 들어간다.
먼저 만나는 키움의 전력에 심상치 않다.
키움은 지난주 SSG와 LG를 상대로 4승 2패를 기록했다. 한 주간 팀 타율 0.284로 리그 5위, 득점권 타율은 0.333으로 2위다. 찬스 상황 집중력이 특히 좋았다. 팀 득점과 타점 모두 리그 2번째로 많다. 마운드 역시 안정적이다. 선발 평균자책점은 3.86, 볼펜은 3.60으로 나쁘지 않다.
하위권 팀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첫 경기부터 ‘에이스’ 안우진과 맞붙는다. KIA 선발은 김태형이 예정됐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선 3승(무패)로 KIA 우세다.
LG와는 일주일 만에 재결한다. 이번 주 6연전 무개념은 단연 여기에 쏠려 있다.
지난주 LG 성적은 5경기 3승 2패. 경기력은 다소 기복을 보였다. 팀 타율이 0.222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고, 팀 평균자책점은 6.14로 9위다.



특히 볼펜 ERA는 7.40까지 치솟았다. WHIP도 1.98으로 리그 최악이다. 그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KIA가 2승 3패로 밀린다. 지난주 광주 홈경기에선 1승 1패였다. 최근 수치만으로 쉽게 볼 상대는 아니다.
두 팀 모두 수비 불안은 공략 대상이다.
키움은 올 시즌 팀 실책 공동 1위(40개), LG는 3위(39개)다. 경기 후반 집중력이 흔들릴 경우 팀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 KIA로선 주루와 압박 야구로 상대를 흔드는 전략이 관건이다.
반면 KIA는 최근 투타 균형이 살아났다. 가장 눈에 띈 건 마운드 안정감이다.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 2.20으로 리그 1위다. 선발 ERA는 2.93으로 2위, 볼펜은 1.04로 전체 1위다.
경기 후반까지 탄탄함을 유지한 점이 긍정적이다. 선발전에선 올리가 지난주 2승을 챙기며 다승 부문 단독 1위(6승)로 올라섰다.
타선도 지난주 팀 타율 0.311으로 리그 3위다. 홈런 수도 리그 유일의 두 자릿수(10개)다. 장타율(0.539)과 OPS(0.937) 모두 1위다.
외야수 김호령의 상승세가 강렬하다. 지난주 20타수 9안타, 타율 0.474, 4홈런 7타점이다. 출루율은 0.500, 장타율은 1.105에 달했다. 공수에서 존재감이 가장 돋보였다. 나성범도 4할대 타율로 중심 타선을 이끌었다.

다만 공백도 생겼다.
2번 타선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이던 박상준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최근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던 자원이란 만큼 타순 재정비가 필요해졌다.
간판 김도영이 주춤한 점도 아쉽다. 주간 타율 1할대에 그쳤고, 홈런은 나오지 않았다. 경기 후반과 승부처에서 김도영의 한 방은 여전히 필수다.
결국 이번 주 KIA의 핵심은 명확하다.
상대 수비 불안을 어떻게 압박하느냐, 그리고 살아난 마운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원정 6연전 결과에 따라 상위권 경쟁 판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주홍철 기자



11년 만에 소년체전 겸도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서석중 선수단(왼쪽)과 육상 여자 U10 80m에서 금메달을 따낸 화순초 김하울.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제공>

역도 진고는 ‘2관왕’·사격 김대현 ‘대회新’

광주, 에어로빅 힙합 5인조·서석중 겸도·씨름 김하울 ‘金’ 전남, 육상 김강석·한지수·김하울 ‘金’, 태권도 강현우 ‘金’

전국 체육 꿈나무들의 스포츠 한마당 축제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 선수단이 고른 종목에서 ‘금빛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사전경기 조정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선수단은 역도에서 진고는 (광주체육 3)이 대회 첫 2관왕을 신고했다.
진고는 역도 여자 U15 81kg급에서 인상 85kg, 합계 196kg을 들어올리며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용상에서는 111kg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보였다. 71kg급에 출전한 윤경아(광주체육 3)도 용상에서 89kg, 합계 159kg을 들어올리며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에어로빅힙합 종목은 이번 대회에서도 광주 선수단의 강세를 입증했다.
U15 5인조 금메달을 비롯해 3인조, 개인전, 힙합 단체전 등에서도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하며 전 종목에 걸쳐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건희(광주에어로빅힙합댄스전문스포츠클럽)는 종목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검도 종목에서도 단체전 성과가 이어졌다. 남자 U15 단체전에 출전한 서석중이 2015년 제44회 소년체전 이후 11년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U12 광주선발팀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허경도(서석중 3)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우수선수 선정되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씨름에서는 무더기 금메달이 나왔다.
남자 U12 용상급 유민준(서산초 6), U15 용

장급 김하울(광주중 3), U12 역사급 노이한(화정남초 6)이 금메달, U12 장사급 양성진(화정남초 6)이 동메달을 따내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특히 김하울은 제22회 확산김성물장사배전국장사씨름대회 등 전국규모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광주 씨름의 차세대 기대주로 이름을 알렸다.
태권도에서도 금메달 소식을 이어졌다. 여자 U12-33kg급 정재윤(봉산초 5)과 -50kg급 김홍림(오지초 6)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여자 U15-40kg급 이서연(광주체육 1)은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밖에 레슬링 남자 U15 그레코로만 110kg급 전재준(광주체육 3)과 체조 여자 U12 도마 이혜슬(양산초 5)도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 양궁 U15에 출전한 김미소(광주체육 2)는 40m에서 은메달, 60m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광주선수단 선전에 힘을 보탤다.
전남선수단은 전통 강세인 육상에서 금메달이 쏟아졌다.
육상 남자 U15 1500m 김강석(전남체육 3)의 첫 금메달을 시작으로 한지수(여수 시전초 6)가 여자 U12 포환던지기에서 12.01m의 기록으로 금메달, 김하울(화순초 4)이 여자 U10 80m에서 11초39의 기록으로 잇따라 금메달을 따내는 낭보를 전했다.
사격에서도 두번의 ‘금빛 총성’이 울렸다.
김합술(나주중 3)이 남자 U15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 김대현(담양중 2)이 U15 공기소총에서 628.1점을 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의



역도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딴 진고은과 은메달 2개를 따낸 윤경아(사진 위). 양궁에서 은메달 2개를 수확한 김미소.

주인공이 됐다. 김대현은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되는 영광도 함께 했다.
수영에서는 박별(전남체육 3)이 여자 U15 자유형 1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이 나왔다.
남자 U12 54-58kg급에 출전한 강현우(보성초 6)와 여자 U12 42-46kg급 박다원(목포동초 6)이 금메달과 함께 나란히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이밖에 육상 남자 U12 멀리뛰기 김예울(여수용천초 6), 여자 U10 80m 이라임(장성중 양초 4)이 은메달을 따냈고 여자 U15에 출전한 이예원(전남체육 3)도 용상과 함께해서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희중 기자

‘무안의 딸’ 김향기, AG ‘금빛 도전’

2026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아시안게임 출전 티켓 확보

‘무안의 딸’ 김향기(한체대)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발차기’에 도전한다.
김향기는 지난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49kg급 경기에서 174cm 장신을 활용한 폭발적인 공격 전환과 연속 발차기로 상대를 압도하며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월 2026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았던 김향기는 아시안게임 출전권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과 담대한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무안초 2학년때 태권도에 입문한 김향기는 꿈나무 시절부터 각종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일찌감치 한국 태권도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무안군 최초 시니어 국가대표로 ‘금빛 낭보’를 전한 김향기의 소식에 지역에서 식당 ‘향기네’를 운영하며 딸의 꿈을 묵묵히 뒷바라지해 온 부모 김종민·홍운정씨에게도 지역민들의



2026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아이-나고야아시안게임 출전 티켓을 따낸 김향기.

뜨거운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향기는 “국가를 대표하는 무대라 긴장도 컸지만, 오직 훈련장에서 땀 흘리며 준비한 체 기량만 후회 없이 펼치고 오자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 것이 값진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넘어 꿈이자 목표인 2028 LA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한국오픈 최초 ‘예선 거처 정상까지’

‘광양 출신’ 양지호, 3년 만의 우승

양지호가 골프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오픈 선수권대회에서 예선을 거쳐 출전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양지호는 지난 24일 열린 코오롱 제88회 한국오픈(총상금 14억원) 4라운드에서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를 기록하며 2위 찰리 린드(스웨덴·5언더파 279타)를 4타 차로 따돌렸다.
2022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KB금융리브챔피언십, 2023년 6월 KPGA 투어·일본프로골프투어(JGTO) 공동 주관으로 열린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 이은 양지호의 3번째 우승이다. 우승 상금은 5억원이며, 보너스 2억원을 더해 양지호는 이번 대회에서만 총 7억원을 챙겼다.
아울러 양지호는 KPGA 투어 5년 시드, 2028년까지 아시아투어 시드도 획득했으며, 7월 열리는 디오른 챔피언십 출전권과 다음 주 LIV 골프 코리아 대회 대기 선수 자격도 얻었다. /연합뉴스



우승 트로피를 든 양지호 <한국오픈 조직위원회 제공>

양지호는 한국오픈 역사상 처음으로 예선을 거쳐 출전해 우승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예선을 18위로 마쳐 출전하지 못할 뻔했던 양지호는 결원이 생기면서 기회를 얻은 이번 대회에서 1라운드부터 한 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까지 달성했다. /연합뉴스